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음 2월 3일) 제17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청 관계자들이 27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전주시, 올 대선공약 확정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 구축
전통문화 4차산업 선도 등
정당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

전주시가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올 대선공약으로 확정했다.

전주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통문화기반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3대 핵심정책 9대 단위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요구기로 했다.

전주는 호남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전북의 중추도시로 역사·전통문화의 위상과 원형, 풍부한 문화자원 등 월등한 문화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국가적 문화브랜드 창출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배낭여행지인 ‘본니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관광명소 3대도시, 지역문화지수 전국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700여 개의 한옥마을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한옥마을 등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전통문화와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성장모델을 만들어내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 등 국가적 지원체계 등을 주 골자로 한 ‘(가칭)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공약 반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주 전통문화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 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산업 선도 등 3대 핵심정책 9개 단위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정했다.

우선, 천년역사 정립·재창조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조선시대 지방행정 거점유산 복원 △해외동포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파크 △한문문화 헤리티지로드 재창조 등 3개 단위사업을 담고 있다.

문화유산 거점 구축의 경우,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담을 수 있는 △국립천년의 뮤지엄 △전라정신미술관 국가기록원 △전통놀이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통문화기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전통문화 어드벤처 밸리 구축 △전통문화디지털 기술융합 R&D센터 △(가칭)한국전통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을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요구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절문근사’ 전북도정, 현장 속으로

〈切問近思〉

도, 남부시장 상인연합회 방문... 지역경제·일자리 창출방안 논의

전북도는 27일 민생현장인 전주 남부시장 상인연합회를 방문해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상인연합회장,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산학농정위원회 위원장 등 일선 민생경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탄핵정국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경제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내수 둔화로 연 2.8%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동중단, 청탁금지법 시행, 농촌고령화, AI 및 구제역 등이 지역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로컬푸드 매출 증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올뉴크루즈 양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6개 기업 분양계약 체결, 2017 전북분문의 해 운영으로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 추진

등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민생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관련 예산의 신속집행과 민생여건 개선,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의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농촌·지역업체 등 민생경제 활력화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도 이어졌다.

전북도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경제 안정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 3,520억원에서 올해 3,928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협업 기반 협동조합을 올해 30개 발굴·육성하는 등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19개소에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야

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등 지역 특성과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전주 서부시장과 군산 공설시장에 청년몰을 설치하는 등 총 14개 사업에 145억 원을 투자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 고령화 및 빈점포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청년상인 육성 사업과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해 외부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주요 관광지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 설치 등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 및 매출감소로 농가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어 소포장재 개발 지원,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시행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가격은 95%, 매출은 90% 수준 이상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확대되는 농축수산물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금액기준

상향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하진 지사는 지역경제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효과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정책대상·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현안별 이슈를 점검하고, 민생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저성장, 4차산업혁명, 청년실업률 등 경제 이슈에 대해 협업행정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현장을 찾는 분야별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매일 INDEX

- 3면 -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 12면 - 국제영회제 한국관련 본선작
- 13면 - 아카데미상 시상식

“최순실 추천 공직자 임명 사실 없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본문에서 의견서 통해 의혹 부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추천으로 공직자를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본문에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최씨에게 많은

문건을 전달하고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인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책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직자 중에 최씨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말이 있지만, 최씨 추천에 따라 임명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계욱